

중동의 허브에서 기업지원 활동 나서

손학규 경기도지사, 두바이 현지기업들과의 무역상담

첨단 IT기업들의 아랍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지난17일 중동의 허브로 알려진 두바이를 방문했다. 두바이는 현재 공사 진행 중인 전철, 도로, 인공섬 프로젝트 등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를 발주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제금융센터(DIFC), 두바이국제금융시장(DIFX)설립과 관광, 미디어 산업의 개발로 세계의 투자자와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손지사는 이날 아침 두바이상공회의소(Dubai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의 Mr. Obaid Humaid Al Tayer 회장, Dubai Holdings의 Mr. Mohamed Al Geragawi 회장 등과 만나 한국기업의 두바이 진출을 위하여 적극 나서 주기를 주문했다.

두바이상공회의소는 UAE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 활동 발전을 목적으로 7만9천460개사의 회원사를 거

느리는 아랍지역 최대의 상의 단체이다. 이어서 동행한 한국기업과 상공회의소 산하기업간의 무역상담회에서는 한국의 IT 관련 상품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한국의 우수 기술과 두바이의 자본으로 합작투자를 모색해 보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AI Ghurair 그룹은 UAE의 3대 주요그룹중의 하나이며, 부동산, 쇼핑물, 제조업, 설탕가공, 투자, 금융 등 모든 산업에 관련되어 있으며 현재에는 IT산업, 특히 텔레콤 산업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우수한 IT, 텔레콤 관련 기업사들의 두바이 진출에 지대한 관심을 표시했다.

이러 손지사는 두바이에서 건설 중인 삼성부르즈두바이 등 대규모 프로젝트 현황을 돌아보면서 "세계의 허브 구축을 위해 사막 위에 이런 대단위 프로젝트를 우리 한국인



6월17일 두바이 상공회의소를 방문한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프리젠테이션과 양국협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후 두바이 상공회의소 오베이드 알 타이어회장으로 부터 선물을 받고 있다.

의 기술로 추진하는데 대하여 자긍심을 느낀다"며 삼성물산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일산~퇴계원 40분이면 달린다

통행료 당초 5천원에서 3천원으로 낮춰

서울의곽순환도로 일산~퇴계원 구간이 이달 30일 착공 5년 만에 대부분 개통된다.

개통을 앞두고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온 통행료는 당초 목표액 5000원에서 3000원으로 낮췄다.

이번에 개통되는 도로는 일산~퇴계원(36.3km) 전체 구간 가운데 일산~송추(18.2km)와 의정부~퇴계원(10km) 구간이다. 그 중간인 송추~의정부 구간(8.1km)이 빠진 것은 환경훼손 논란으로 사해산 터널 구간 공사가 2년 동

안 중단됐기 때문이다. 송추~의정부 구간을 포함한 전 구간 개통은 2008년 6월로 예정돼 있다.

서울 외곽을 한 바퀴 순환하는 서울의곽순환도로의 전체 연장은 128km로 이중 94%인 120km가 이달 중 풀리는 셈이다.

건설교통부는 지금까지 43, 49번 국도를 이용해온 운전자가 일산~퇴계원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이동 거리는 44.5km에서 39.2km로 5.3km, 통행 시간은 1시간10분에서 40분으

로 약 30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개통된 송추~의정부 구간은 기존 도로망인 39번 국도와 의정부 서부우회도로를 이용해 송추IC와 의정부IC를 통해 진출입해야 한다.

전 구간이 완전 개통되는 2008년에는 일산~퇴계원 구간 36.3km를 왕복 8차선 도로를 통해 시속 100km로 25분 만에 주파할 수 있게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7월10일 중앙천 승용차전용도로 폐쇄

의정부시 국도3호선 우회도로·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

의정부시는 인근 자치단체와 시민들의 반발로 폐쇄를 유보했던 중앙천 승용차 전용도로를 다음달 10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의정부시는 소음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중앙천 도로 폐쇄가 불가피하다면서 국도 3호선 우회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교통 체증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양주시 등은 최근 공문을 통해 "도로를 폐쇄할 경우 만약 중소기업체들이 상습체로 인해 엄청난 물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오는 2008년까지 유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지난 3월 10일 승용차전용도로를 폐쇄할 계획이

었지만 양주시 등의 반발로 다음달 10일로 연기했다. 의정부시는 중앙천차량전용도로를 폐쇄한 뒤 오는 2009년까지 380여원을 들여 산책로와 자전거 전용도로를 갖춘 시민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의정부시가 도로를 폐쇄하면서 우회도로로 유도하고 있는 평화로는 의정부 도심을 지나아하는 상습 정체구간인데다, 국도 3호선 우회도로는 경민대학 광장 구간이 공사중이어서 현재도 병목현상으로 인한 교통 체증이 심한 곳이다. 또 국도 43호선 우회도로도 장암~만가대 구간이 착공도 못한 상태여서 교통난 해소에 도움을 주지 못할 전망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돕기 일일차집행사 실시

신록이 푸르른 6월을 맞아 의정부2동 새마을부녀회는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돕기 자선행사(일일차집)를 실시하여 이웃간에 훈훈한 정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의정부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돕기 자선행사가 성황리에 실시됐으며, 그 자리에서 모금한 소중한 성금으로 관내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들을 돌아볼 계획으로 이웃사랑의 실천에 앞장선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의정부2동새마을부녀회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외되고 불우한 이웃들을 돕기 위한 사랑의 실천을 멈추지 않기로 했으며 살기 좋고 인정이 넘치는 의정부2동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애인 "헤어지자"에 20대 女 아파트서 투신

15일 새벽 2시57분경 의정부시 민락동 모 아파트 15층에서 B씨(21·여)가 뛰어내려 숨져 있는 것을 B씨의 언니(25)가 발견, 경찰에 신고 했다.

언니 B씨는 "통생이 밤 늦은 시간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아 걱정돼 밖에 나가 찾아다녔는데 15층 복도 계단 창문에서 뛰어 내려오는 것을 발견, 크게 소리쳐 말렸으나 그냥 뛰어 내려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군 북부중 휴가를 나온 B씨의 남친(21)이 14일 밤 술을 마시다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B씨 언니의 진술 등으로 미루 처지를 비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경기사랑의봉사단 의료소외대상자 봉사활동

의료소외지역 근로자·주민 대상 이동진료 실시



경기사랑의봉사단은 지난 16일 의료소외지역을 찾아가 의료수혜를 받지 못하는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동진료 및 건강관리 상담을 하고 있다.

지난 16일 경기도 제2청사 경기사랑의봉사단(단장 나금희)은 4개반 12명의 진료팀을 구성하고 의료소외지역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경기도 전지역을 대상으로 오지지역을 순회하며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경기사랑의봉사단은 이날 연천군 청산면 대전

리에 소재한 청산농장 섬유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지역주민 등 개인사정으로 의료수혜를 받지 못하는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의과,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분야에 대해 이동진료 및 건강관리 상담을 실시했다. 박영남 기자 varanasise@naver.com

제15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개최

제4대 마지막회기 4건의 조례안 처리

의정부시의회(의장 이창모)는 제4대 의정부시의회의 마지막 회기가 될 제153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를 22일부터 23일까지 2일만에 걸쳐 4건의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살펴보면, 23일 기획·총무위원회는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을,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정부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의를 거쳐 6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 지침에

의거 복지·문화 관련 조직을 하나의 국(局)으로 통합하고, 행정수요 중대분야 조직 보강과 행정지원기능 조직 축소를 위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생활복지국 신설과 기존의 건설교통국이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으로 분리됨으로 시민에게 보다 빠른 민원처리와 행정서비스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30일로 4년간의 임기를 마칠게 될 제4대 의정부시의회는 재임기간동안 총 320일의 회기일수에 임시회 36회, 정례회 8회를 개최하여 총 40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2006년 6월 29일 폐회일을 끝으로 그 임기를 마칠게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경기북부 관광안내책 5000권 제작

경기도 제2청사는 오는 10월까지 1억5000만원을 들여 3권짜리 경기북부지역 관광안내책 5000권을 제작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관광안내책에 고지도와 유명화가의 산수화를 담아 소장 가치가 높은 '아트북' 형태로 제작하고 국내외 방문객 기념품과 관광홍보에 활용할 방침이다.

제1권에서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주요 관광지를 망라하고 제2권에서는 안보, 미술, 먹거리 등 테마별 관광코스과 무박, 1박2일 등 일정별 코스를 소개할 계획이다.

마지막 제3권은 여행 중 촬영한 사진과 여행 후기 등 개인기록을 담을 수 있는 일기 형태로 제작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중요범인 검거 유공경찰관 표창수여식

의정부경찰서(서장 허남석)는 지난 14일 각 계장, 지구대·파출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감인원을 마친 후 중요범인 검거 유공경찰관에 대한 표창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상자는 총17회에 걸쳐 1,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절도피의자를 검거한 형사과 경사 한호영을 비롯해 서남열, 이경수, 경장 김광진, 신곡지구대 순경 박병룡 등 총 5명에 대해 수여증을 가졌다. 박영남 기자 varanasise@naver.com

포장산업을 선도하는 기업

비닐쇼핑백, 종이쇼핑백, 각종 비닐포장재 전문생산



포장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대봉매리트는 기획에서 디자인, 인쇄, 가공, 완제품 납품에 이르기까지 전공정을 원라인으로 처리하여 귀사의 제품을 보다 안전하고 품위있게 유지시켜 드리겠습니다.

비닐 쇼핑백



비닐 제품



공장·사무실

포천시 가산면 우금리 611-4
Tel. 031)544-0051
Fax. 031)544-0052

대표: 임대섭